# 경인아라뱃길 시범운영 개시

## 불편사항, 잔여공사 거쳐 내년 5월경 전면 개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는 지난달 29일부터 국내 최초 내륙뱃길인 경인아라뱃길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을 위해 선박통항규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갑문, 관제시스템(VTS)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부터는 선박을 실제 투입하여 시운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앞으로 약 6개월간의 뱃길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선박운항 단계적 확대 및 잔여공사 마무리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전면적으로 개장하게 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여객유람선(유료)이 운항일정에 따라 아라뱃길, 아라뱃길~세어도, 여의도~서해섬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항하게 된다.

특히, 아라뱃길~세어도 운항 선박은 11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겸해 정기적으로 운항되며 태풍 등 기상악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수에 관계없이 연중 1일 2왕복 운항된다.

화물선은 11월부터 부산, 제주 등 국내 연안항만에 대한 시범운항을 시작하며, 하역장비 안정화 과정 등을 거쳐 중국 등 해외항만으로 시범운항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 전문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 전문건설협회, 해건협과 업무협약 체결

코스카(KOSCA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는 지난달 16일 중구 서소문동 부영빌딩에서 해외건설협회(회장 이재균)와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을 대표해 코스카 류영창 상임부회장과 해건협 신숭철 부회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였으며,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중인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관련정보 공유 및 제공은 물론 애로사항 공동조사, 설명회 및 교육 공동개최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카는 그동안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해외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사업 경험 등이 부족하여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내부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스카와 해외건설협회가 전문건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코스카가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던 추진전략이 해외건설협회의 지원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양 기관은 그 첫번째 협력사업으로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건설 해외진출 설명회』를 공동 개최키로 하고 세부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해외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해외건설 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공동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코스카 류영창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해외시장에서도 십분 발휘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전문건설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 예식장 생긴다

## 접근성 입지여건 고려 단계적 늘여나갈 계획

다문화가정의 경제적사정을 고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휴게소에서는 지난달 30일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다문화 부부 두 쌍의 합동 전통혼례식이 열렸다.

이번 전통혼례식은 안성문화원장(원장 양장평)의 집례아래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모관대를 한 신랑과 양 볼에 연지곤지를 찍고 원삼을 입은 신부가 점촉, 신랑신부 맞절, 합환주 등 전통혼례 의식을 이어갔다.

또한 경기민요 기능보유자인 황연임 선생의 공연으로 이날 휴게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전통혼례의 아름다움에 더해 흥겨운 축하의 자리가 됐다.

이날 신부인 다이오 탄번(21, 베트남), 체 카트린(24, 필리핀)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전통혼례가 매우 재밌고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세 번째인 다문화 부부 전통혼례식은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혼례를 치러주기 위해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작한 것이 그 시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신탄진휴게소 등 일부 휴게소에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하는 혼례행사에 착안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예식장 설치를 검토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백화점과 호텔 수준에 버금가는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내 예식장 도입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시장조사와 입지여건 검토를 통해 적정한 위치의 휴게소를 선정하고 예식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제49회 총회 개최

## 이사장에 이종상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 선임

이날 선임된 이종상 이사장은 어려운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합을 내실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서울 신대방 사옥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9회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에 이종상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선임하고,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대의원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1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철수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종상(62세)씨를 선임했다. 이종상 신임 이사장은 1949년 경남 고성 태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과 균형발전본부장,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국제 시민단체인 그린크로스 한국 대표부 회장과 경원대학교 초빙교수를 맡아왔다. 신임 이사장은 내달 12일부터 3년간 이사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합은 금년도 보증·융자·공제·임대·교육원·자금운용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건설투자증가율을 반영해 내년도 수익예산을 2601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인 보증의 경우 내년도 SOC 등 공공부문 투자는 4대강 사업 완료 등으로 감소하고 민간부문의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추정 실적인 12조169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11조9141억 원을 예상하고, 내년도 보증수수료 수익을 837억 원으로 편성했다.

융자부문 역시 신용자금융자 및 어음할인 실적이 모두 감소됨을 반영해 평균융자잔액을 1조9117억 원으로 추정하고, 내년도 융자금이자수익을 423억 원으로 편성했다.

영업외수익의 경우 예금 및 수익증권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등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1108억 원으로 추정했다.

비용예산은 2509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보증지급금이 늘어남에 따라 구상채권상각비 1472억 원 등 충당금 설정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경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96억 원으로, 보증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본지점 회관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용,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고 등 영업력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구성됐다.

자본예산에는 전문건설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신축하고 있는 회관 건립비용, 리츠 및 사모펀드 등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2289억 원이 편성됐다.

# 2011년 하반기 건설안전교육 개최

## 국토부 주최, 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이 주관하는 2011년 하반기 건설안전교육' 이 지난달 27일 공단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교육은 경인지역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발주청, 시공사, 감리원 등에서 약 500명이 참석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의 제도 개선사항,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최근 사고사례 분석', 한국가설협회의 '가설재 및 가설구조물 설계·시공'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인들의 노력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해양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앞으로 본 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MG 새마을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건전하게 발전해온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튼튼한 재무구조와 완벽한 예금자보호제도 정착 등으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믿음만이 고객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의 신념-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완벽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 해놓고 있어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원리금포함) 까지 예·적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실요인 발생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융권 부실요인 중의 하나인 PF대출 자체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형부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정보 면에서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회원과 지역주민에게 가계자금 위주의 대출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매년 이익금의 충실한 적립을 통하여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예·적금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원의 믿음과 신뢰속에 나날이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지원없이 예금자를 보호해 왔습니다

지난 국내 경제위기(IMF구제금융) 당시 은행 등은 16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지만 새마을금고는 한 푼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새마을금고 해산 등으로 예·적금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자들에게 자체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적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예금자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